

# 『滴天髓』 격국론의 후대 평주 간 비교연구

이보영\*, 김기승\*\*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동양학과

## A Study on Comparison of Later Commentaries about Kyeokguk theory of *Jeokcheonsu*

Bo-young Yi\*, Ki-Seung Kim\*\*

Dept. of Oriental Study, University of Brain Education

**요약** 이 연구는 『적천수』에 대한 다양한 판본들을 비교하고 분석하여 한가지 원문을 두고 평주한 시각에 따라 달라져 있는 주석에 대하여 어떤 해석이 더 타당한 것인가를 확인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적천수』의 명리이론에 대한 오해 중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격국론이다. 『적천수』는 격국을 중시하지 않았으며 억부용신을 강조하는 명리 고전이라는 평가를 많이 받는다. 하지만 원문을 이론별로 분류해 본 결과 억부론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문장은 5개 남짓에 불과하지만, 격국론을 설명하고 있는 문장은 9개 그리고 중격과 화격을 설명한 것까지 포함한다면 격국을 설명하는 문장이 15개에 이른다. 은유적 화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명리 초급자에게 읽히고자 저술된 서적이 아님도 분명하다. 명리의 원리를 이미 학습하여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더 심오한 이치를 전달하고 깨우침을 갖게 하고자 저술된 명리서이다. 이런 수준의 독자를 가정하고 저술되었기에 “財官印綬分偏正 兼論食傷格局定”이라는 하나의 문장이면 격국론에 대한 설명으로 충분하였을 것이다. 『적천수』에 담겨있는 후대 평주 간 명리이론중에서 격국론에 관련된 ‘팔격’, ‘관살’, ‘상관’, ‘월령’, ‘생시’, ‘청탁’ 원문에 대한 4인의 평주를 비교 분석하였다.

**주제어** 적천수, 격국론, 팔격, 관살, 상관, 월령, 생시, 청탁

**Abstract** This study used a method of comparing and analyzing various editions of Jeokcheonsu, and aims to confirm why different views have arisen on commentaries that differ according to the perspective of one original text, which interpretation is more valid among them. The biggest part of the misunderstanding of Myeongri theory in Jeokcheonsu is Kyeokguk theory. Jeokcheonsu does not set a high value on Kyeokguk, and it is highly regarded as the Myeongri classics that emphasizes Eokbuyongsin. However, as a result of classifying the original text by theory, we can see there are about 5 sentences that directly mention Eokbu theory, but 9 sentences that explain Kyeokguk theory and 15 sentences if we include the sentences that explain Jonggyeok and Hwagyedok. Even looking that metaphoric speech is mainly used, it is also clear that it's not a book written to be read by a beginner of Myeongri. This is Myeongri texts written to convey more profound logic and enlightenment to a person who has sufficient knowledge by having learned the principle of Myeongri. A single sentence of 'Jaegwaninsubunpyeonjeong Gyeomronsiksanggyeokgukjeong' would have been sufficient to explain the Kyeokguk theory, because it's written on the assumption of the reader's level. Among the later commentaries about the theory of Myeongri contained in Jeokcheosus, 4 persons'commentaries on the original text of 'Palkyeok', 'Gwansal', 'Sangkwon', 'Wolryeong', 'Saengsi', 'Cheongtak' related to Kyeokguk theory was compared and analyzed.

**Key Words** Jeokcheonsu, Kyeokguk theory, Palkyeok, Gwansal, Sangkwon, Wolryeong, Saengsi, Cheongtak

Received 27 Dec 2021, Revised 04 Jan 2022

Accepted 18 Jan 2022

Corresponding Author: Ki-Seung Kim

(University of Brain Education)

Email: kbs4984@hanmail.net

ISSN: 2466-1139(Print)

ISSN: 2714-013X(Online)

© Industrial Promotion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1. 서론

이 연구는 『적천수』에 대한 다양한 판본들을 비교하고 분석하여 한가지 원문을 두고 평주한 시각에 따라 달라져 있는 주석에 대하여 어떤 해석이 더 타당한 것인가를 확인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적천수』의 명리이론에 대한 오해 중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격국론이다. 『적천수』는 격국을 중시하지 않았으며 억부용신을 강조하는 명리 고전이라는 평가를 많이 받는다. 하지만 원문을 이론별로 분류해 본 결과 억부론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문장은 5개 남짓에 불과하지만, 격국론을 설명하고 있는 문장은 9개 그리고 종격과 화격을 설명한 것까지 포함한다면 격국을 설명하는 문장이 15개에 이른다. 『적천수』는 『연해자평』이나 『삼명통회』처럼 세상에 회자하던 명리이론을 모두 채집하고 수록하는 자습서 혹은 백과사전의 성격을 띠고 있지 않다. 財官印食, 煞傷梟刃 등 십성에 대한 설명조차 한 글자 없는 불친절한 서적이다. 은유적 화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명리 초급자에게 읽히거나 저술된 서적이 아님도 분명하다. 명리의 원리를 이미 학습하여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더 심오한 이치를 전달하고 깨우침을 갖게 하고자 저술된 명리서이다. 이런 수준의 독자를 가정하고 저술되었기에 “財官印綬分偏正 兼論食傷格局定”이라는 하나의 문장이면 격국론에 대한 설명으로 충분하였을 것이다.

『적천수』에 담겨있는 후대 평주 간 명리이론중에서 격국론에 관련된 ‘팔격’, ‘상관’, ‘월령’, ‘생시’, ‘청탁’ 원문에 대한 4인의 평주를 비교 분석하였다.

## 2. 격국론에 대한 평가와 주석

유백은은 격(格) 중 참된 격은 월지의 신이 천간에 투출한 것이라고 하였다. 임철초도 팔격(八格)은 먼저 월령에서 만난 것이 어떤 것인지 보고 월령이 천간에 투출한 것이 어떤 신인가 보고 진가(眞假)와 청탁(淸濁)을 구분해야 한다고 하였다. 더불어 월령에서 건록이나 양인을 만나면 취할 만한 격이 없으니 일주의 희기를 살피고 별도로 다른 지지에서 천간에 투출된 것을 찾아 용신으로 삼는다고 하였다. 반자단은 유백은의 원주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마지막에는 심효침의 『자평진진』이 격국

론으로서는 가장 적절하다고 말한다. 한편 서락오는 원문의 ‘分偏正’이라는 말을 독특하게 해석하고 있다. 正은 정격(正格)으로 8종이 있고, 偏은 변격(變格)으로 6종이 있다고 하였다. 정격의 이름이 여덟이라 하였으니 실제로는 여섯이라 하고 재성과 인성은 정편을 하나로 삼아야 하며 건록양인은 월령 외 타신(他神)에서 격을 취하니 여섯으로 충분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말미에 본인이 평주한 『자평진진평주』를 참고하라고까지 친절하게 기록하며 그가 심효침의 격국이론을 수용하고 있음을 밝혔다. 변격 6종은 전왕, 종강, 종재, 종살, 종아, 종화라 하였으니 임철초의 종격 확장론을 수용하고 있다.

적천수 판본 중 임철초 주석본인 『적천수천미』와 『적천수정의』에는 원문 중 ‘격국(格局)’이라는 단어 대신 ‘팔격(八格)’이라 기록하고 있고 소제목도 그렇게 드러내고 있다. “격국”으로 남아 있는 판본은 진소암의 『적천수집요』인데 진소암의 의도적인 수정인지 유전되다 임철초에 이르러서 수정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이미 원문의 내용상 정재, 편재, 정관, 편관, 정인, 편인, 식신, 상관으로 8종의 격국을 표현한 것이므로 정격이든 팔격이든 이견이 발생할 여지는 없다. 원문 두 번째 문장인 ‘影響遙繫既爲虛 雜氣財官不可拘’에서는 잡격(雜格)을 영향요계(影響遙繫)에 비유하였고, 명대 명리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던 잡기재관격(雜氣財官格)에 대하여 부정적 견해를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유백은은 영향요계는 비격(非格)이며 잡기재관은 불가언(不可言)이라 언급하며 더욱 강하게 부정한다. 더불어 양인과 건록에 대해서는 무격(無格)이라는 표현을 쓰고 격에 포함될 수 없음을 언급한다. 임철초는 『연해자평』, 『삼명통회』 등에 남겨진 복잡다단한 격국에 대하여 암충(暗沖), 암합(暗合)으로 격을 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또 辰戌丑未가 잡기라면 寅申巳亥도 잡기이며 辰戌丑未가 沖을 좋아한다는 개고설(開庫說)에 대해서도 비난하였다. ‘팔격’편의 평주에서는 특히 서락오가 이견(異見)을 많이 보이는데 전래되는 외격도 3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 그 중 서귀격, 조양격, 일록귀시격, 비천록마격, 정란차격 등의 유형은 정격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평함으로써 일부 외격은 인정하는 견해를 보이기도 한다. 반자단 또한 유백은, 임철초와 같이 잡격을 배격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니 이는 청대 이후 명리가들의 대부분 공통적인 견해임은 분명하다.

〈표 1〉 격국론 관련 ‘팔격’ 원문 및 4인 평주 요약

八格	財官印綬分偏正, 兼論食傷格局定。
유백은	격 중 참된 격은 월지의 신이 천간에 투출한 것이다. 만약 천간에 투출했어도 산란하고 타신이 제강이 되어 버렸다면 그것은 참된 격이 아닌 것이다.
임철초	정격을 논하고, 록인의 경우 별도로 다른 지지에서 투간된 것을 찾고, 정격의 종류 및 변격, 특히 다양한 종격에 대해서 열거한다. 잡격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서락오	원문의 正偏을 독특하게 해석. 正은 정격으로 8종이 있고, 偏은 변격으로 6종이 있다고 하였다. 변격 6종은 진왕, 종강, 종재, 종살, 종아, 종화이라 하였다.
반자단	천간의 형상을 논하고, 지지의 방국을 논하고, 형상도 방국도 별볼일 없다면 그 다음에 격국을 논한다. 격국은 자령진전의 이론이 가장 적절하다 말한다.
八格	影響遙繫既爲虛, 雜氣財官不可拘。
유백은	잡격과 잡기재관격에 부정적이다. 양인, 건록, 형상, 방국이 혼탁할 때는 용신을 취할 수 없으니 대세를 보아 표면상으로 공통할 뿐 격을 취할 수 없다 하였다.
임철초	암중, 암함으로 격을 논하는 것이 영향요계이다. 잡기재관이 층을 좋아한다는 것은 천작일 뿐이다. 천간에 투출된 것으로 격을 취하는 것이 옳다.
서락오	잡격도 3가지, 서귀, 조양, 귀록, 비천록마, 정관차 등은 정격과 같고, 오성연혁, 남음신살로 된 격이 영향요계니라. 공협, 간지일기, 암중요함은 격은 아니다.
반자단	영향요계, 잡기재관은 논할 것이 못되며, 정격을 정신분석학의 知覺派(제성), 直覺派(인성), 情感派(식상), 理智派(관성)로 대비됨을 논한다.

4인 평주가의 관찰혼잡과 상관관관에 대한 해답이 하나로 일치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를 이견이라고 보기는 힘든 것이 한 분의 해답이 맞고 다른 한 분의 해답이 틀리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모두 복합적으로 준용되어야 할 부분이다. 유백은은 관찰혼잡의 경우 관과 살의 경중(輕重)을 가지고 그 해답을 찾고자 하였고, 임철초는 그의 경향성을 여기서도 확실히 드러내며 일간이 신앙하면 혼잡이 가하고 휴수하면 혼잡이 불가하다는 해답을 제시한다. 서락오는 용재생관(用財生官), 용인화관(用印化官), 살중제경(煞重制經), 살경제중(煞經制重), 신경살중(身經煞重), 신강살경(身強煞經) 등 관찰혼잡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격국 체상의 경우의 수를 열거하며

가(可), 불가(不可)를 구분지었다. 하지만 열거된 체상을 살펴보면 유백은의 생각과 임철초의 생각이 모두 섞여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반자단 또한 유백은의 관찰의 경중, 그리고 임철초의 일간의 신강신약을 모두 관찰혼잡의 가(可), 불가(不可)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함께 사용해야 한다고 하였다.

임철초는 이 부분을 평주하는 과정에서 칠살과 상관에 집중하여 참고자료로 칠살과 상관의 세부 격국 형식을 열거하며 설명과 예시를 덧붙이고 있다. 그가 제안한 칠살격의 세부 격국은 ① 재자약살격, ② 살중용인격, ③ 식신제살격, ④ 합관류살격, ⑤ 관찰혼잡격, ⑥ 제살태과격 등 6종이다. 그리고 상관격의 세부 격국은 ① 상관용인격, ② 상관용재격, ③ 상관용겁격, ④ 상관용상관격, ⑤ 상관용관격, ⑥ 가상관격 등 6종이다. 후일 임철초의 『적천수천미』와 『적천수정의』로 독서를 하고 학습을 한 후학들에게 격국론 중에서 특히 칠살격과 상관격에 대해서만 세부 격국을 기억하게 하는 편향적 학습법을 제시해 버리기도 하였다. 『적천수』의 부족한 내용을 보충하고자 하는 임철초의 의도와 열의는 충분히 이해되지만, 후일 편향성과 오해를 일으켰다는 점은 있다.

〈표 2〉 격국론 관련 ‘관煞’ 원문 및 4인 평주 요약

官煞	官煞相混來問我, 有可有不可。
유백은	官煞混雜이라도 주도권을 官이 가졌는지 煞이 가졌는지에 따라 可할 수도, 不可할 수도 있다. 煞이 성격일 때 官은 괜찮으나 官이 성격일 때 煞은 불가하다.
임철초	官보다 煞에 대한 유형을 여럿 기술하고, 관찰혼잡의 可, 不可에 대한 기준을 日干으로 보았으니, 日干 旺相하면 혼잡이 괜찮으나 休囚하면 혼잡이 불가하다.
서락오	用財生官(不可), 用印化官(可), 煞重制經(不可), 煞經制重(可), 身經煞重(不可), 身強煞經(可)
반자단	官煞 둘중 어느 한쪽의 세력이 강하다면 그 기세에 순응하여 그 성품을 나타내니 혼잡이 아니다. 官煞이 균형을 이루고 특히 日干이 약하면 관찰혼잡이다.

‘상관’편에 대하여 유백은은 상관격에서 중요한 神은 인성과 재성이라고 하면서 상관과 인성과 일주의 경중(輕重), 그리고 상관과 재성과 일주의 경중(輕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열거하며 정관(正官)이 쓰일 수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하고 있다. 유백은

도 일주의 신강신약을 논하기는 하지만 타(他) 십성의 경중을 살피는 것에 더욱 집중하고 있음을 ‘관살’편과 ‘상관’편의 평주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임철초는 신왕(身旺)하고 상관이 왕(旺)하면 재(財)를 쓰고, 신약(身弱)하고 상관이 왕(旺)하면 인(印)을 쓰고, 신약(身弱)하고 상관이 왕(旺)하고 인성이 없으면 비겁(比劫)을 쓴다고 하였다. 상관견관이 불가(不可)하여 위화백단이 생기는 경우는 모두 신약(身弱)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하면서 사주의 간명에서 신강신약이 중요하다는 관점을 강하게 어필한다. 서락오는 『공통보감』의 조후론을 중시하고, 『자평진전』의 격국론을 차용하는 경향성을 이 부분 평주에서도 여실히 드러내며 火土상관, 金水상관, 木火상관, 水木상관으로 구분하여 설명을 하고 있다. 반자단은 관살편과 상관편에서 유백은의 평주 의견에 강하게 동조하며 관(官)과 살(煞)의 균형, 재(財)와 인(印)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반자단은 전반적으로 임철초가 강조하는 일주의 신강신약 역부분을 기저에 깔고 있다는 것을 이 부분 평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 3〉 격국론 관련 ‘상관’ 원문 및 4인 평주 요약

傷官	傷官見官果難辨，可見不可見。
유백은	傷官用印이거나 傷官用財이거나 신왕하며 재가 경하거나 상관이 경하며 인수가 없으면 정관을 보아도 괜찮다. 반대의 상황이라면 정관을 보는 것은 좋지 않다.
임철초	身旺하고 傷官旺하면 財를 쓰고, 身弱하고 傷官旺하면 印을 쓰고, 身弱하고 傷官旺하고 無印이면 比劫을 쓴다. 상관견관위화백단은 신약한 경우에 발생.
서락오	상관은 財와 印을 쓰지만, 조후를 따지면 화토상관은 傷 盡이 마땅하고, 금수상관은 官을 좋아하고, 목화상관은 官이 왕해야 하고, 수목상관은 財官이 길하다.
반자단	유기의 원주를 그대로 인용하며, 이 말은 참으로 옳다고 하였다.

『적천수』의 목차 구성은 다양각색이고 그중 어떤 것이 원저자의 것인지 확인도 불가능하지만, 『적천수』의 판본별 목차를 살펴보는 것은 출판자 혹은 평주자의 의중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된다. 임철초의 『적천수 천미』에서 ‘월령’편은 팔격(八格) - 체용(體用) - 정신(精神) - [월령] - [생시]의 순으로 ‘팔격’편과 함께 묶여있다. 즉, 월령이 격국과 체용에 관련된 문장이라고 생

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진소암이 출판한 『적천수 집요』에서 ‘월령’편은 한난(寒暖) - [월령] - [생시] - 원류(源流)의 순으로 그 중간에 끼어놓음으로써 진소암은 월령과 생시가 한난조습 즉 조후와 관련이 깊다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서락오는 『적천수정의』와 『적천수 보주』에서 제2편 中 ‘체용정신’편의 서두에 체용 - 정신 - [월령] - [생시] - 쇠왕 - 중화를 하나의 문단으로 묶어서 독특하게 편집하고 있고, 팔격(八格) - 관살(官煞) - 상관(傷官)을 묶어 하나의 문단으로 분리하여 놓았기에 월령을 격국론의 한가지로 보기보다는 전반적인 간명이론의 하나로 취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자단은 『적천수』 전체 맥락에서 혼신을 주는 문장은 후대인의 침삭이라고 간주하며 삭제해버리는 과감함을 보이는데 ‘월령’과 ‘생시’는 그냥 군더더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하면서 삭제해버렸다.

원문은 월령을 집에 비유하였고 인원용사지신(人元用事之神) - 월령의 지장간을 가리키는 것은 분명하나 천간에 투출된 것인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이를 집의 향(向)이라고 하였다. 이를 통해 길흉을 예측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였으니 이중부정 화법으로 월령이 길흉을 예측하는 중요한 단서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유백은은 ‘인원용사지신’을 한 달 기간을 둘 셋으로 분할하는 『연해자평』식의 ‘월률분야지도’와 ‘사령일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에 반해 임철초와 서락오는 천간과 지지가 서로 호응해야 한다고 하며 월령의 지장간이 천간으로 투출하거나 회합을 이루는 것을 통해 격국과 조후를 결정하는 기준점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해석하고 있다.

〈표 4〉 격국론 관련 ‘월령’ 원문 및 4인 평주 요약

月令	月令提綱，譬之宅也，人元用事之神，宅之向也，不可以不卜。
유백은	월령 기간을 3분할 하여 각 해당 지장간이 힘을 갖는다는 人元用事의 원리를 피력한다. 이를 宅之向이라 하였고 이를 헤아려야 한다고 해석한다.
임철초	인원용사를 집의 방향과 같다고 동의하나, 반드시 천간과 지지가 서로 호응해야만 묘한 것으로 천간에 드러나야만 비로소 격을 돕고 용신을 보충한다 하였다.
서락오	月令은 所經路程이요, 生時는 所到地点이라. 인원용사는 천간투출 지지회국해야 원동력이 되나니, 모일모시에 무엇이 사명한다는 것에 집착하지 말라.

반자단	이 부분은 군더더기에 지나지 않는다. 집에 비유하고 집의 방향을 살펴야 하니 등의 말이 필요하겠는가?
-----	--

『적천수』에서 십성과 격국 등 많은 부분을 생략하고 있는 책이라는 점을 참작할 때, 생시(生時)가 하나의 문장으로 남아 있는 점은 분명 의구심을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이 때문에 반자단은 ‘월령’과 ‘생시’가 모두 군더더기이며 후대인이 붙여넣은 첩삭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되었을 것이다. 임철초도 생시를 정확히 아는 이가 많지 않은데 어찌 이를 통해 길흉을 분별한단 말인가라며 부정적 시각을 비추었고 월령이 혈이고 생시는 이를 지나가는 물줄기에 불과하다고 축소하여 해석하였다. 그러나 『적천수』의 저자에게 혹은 저술된 시기의 명리가들에게 월령은 지구 공전의 주기이고, 생시는 지구 자전의 주기라는 점에서 절대 간과할 수 없는 요소였을 것이다. 시기적으로 가장 앞서는 유백은만이 생시를 중시하고 조상의 묘지혈(墓之穴)이라고 강조하고 생시도 월령과 같이 태어난 시분(時分)까지 확인해서 나누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단, 묘(墓)라는 단어 때문에 조상과 연결점을 찾은 부분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며, 원문에서 생시를 귀숙(歸宿; 집으로 돌아옴)이라고 한 점을 비추어 볼 때 사주체 본인의 마지막 안착지이며 말년의 길흉이 될 것이다. 묘(墓)에 비유한 것은 본인이 늙게 될 곳이자 본인의 마지막 행로이며 그 혈(穴)은 자손의 번성과 연결해서 살펴봄이 타당할 것이다.

〈표 5〉 격국론 관련 ‘생시’ 원문 및 4인 평주 요약

生時	生時歸宿，譬之墓也，人元用事之神，墓之穴也，不可以不辨。
유백은	生時の 경우도 모각모분에 태어났느냐에 따라 인원용사가 나뉘고, 같은 생년월일시에도 타고난 운명이 다른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조상의 墓穴을 언급한다.
임철초	生時の 인원용사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생시를 정확히 아는 이가 많지 않은데 월령과 생시의 부합을 어찌 분별한단 말인가. 月時를 山龍의 穴과 水에 비유.
서락오	상기 내용에 포함
반자단	이 부분은 군더더기에 지나지 않는다. 집에 비유하고 집의 방향을 살펴야 하니 등의 말이 필요하겠는가?

『적천수』는 사주의 간명 방법에 대하여 한 문장, 한 문장씩 나누어 열거해 내려가고 있는 형식을 취하고 있

다. 그중에서 격국론과 가장 연관성이 있는 문장을 원문 중에서 골라본다면 ‘청탁(淸濁)’이며, 『적천수천미』에서는 ‘청기(淸氣)와 ‘탁기(濁氣)로 구분해 놓기까지 하였다. 이어서 ‘진가(眞假)’편도 관련성이 있지만, 용신에 관한 내용을 살펴면서 다루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되어 뒤로 미룬다. ‘청기’란 맑은 기운이란 뜻이다. 사실 다분히 광의적이고 형이상학적 의미를 지닌 단어이고 정신적 영역에 속한다. 도량이 넓고 많은 이들을 포용하는 아량을 가지고 있는 군자(君子)의 품모를 가리켜 ‘청(淸)’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사주에서는 무엇을 가리켜 ‘청(淸)’하다고 하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사주에서는 沖靚이 없고 막힘이 없이 오행이 잘 흐르는 사주를 청(淸)한 사주라고 부른다. 반대로 沖靚이 많고 오행이 끊기고 막혀 있는 사주를 탁(濁)한 사주라고 부른다. 청(淸)한 사주를 가진 이가 군자의 품모를 지녔다는 추론을 할 수 있고, 『적천수』 원문에서는 평생 진부(富貴)를 누릴 것이라고 하였다. 격국의 성패를 가장 분명하게 논하고자 하였던 심효침의 『자평진정』을 살펴보면 유정(有情)-무정(無情), 유력(有力)-무력(無力)을 통해서 격국의 성패와 고저를 판명하였는데, 유정-무정이 『적천수』의 청(淸)과 탁(濁)에 해당하며, 유력-무력이 『적천수』의 진(眞)과 가(假)에 해당한다고 추론하여 대응시킬 수 있다.

4인의 평주자들이 생각했던 청(淸)과 탁(濁)의 정의를 살펴보면 유백은은 청(淸)하다는 것은 예를 들어 정관격이 신왕할 때 재성이 있는 경우, 신약할 때 인성이 있는 경우이며, 상관과 칠살이 정관격의 체상에 섞이지 않은 경우라 하였고, 더불어 비견, 식신, 재성, 관살, 인수가 섞여 있다고 할지라도 차례대로 돌아가며 잘 정돈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였다. 예시를 통해 청탁에 대한 명리적 관점의 정의를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사주를 간명함에 있어서 청탁(淸濁)을 구분해 내는 것이 정량적으로 딱 구분되는 것이 아니며 청함과 탁함이 섞여 있는 경우가 다수이다. 원문에서도 정탁구청(淸濁求淸)하거나 반탁반청(半濁半淸)한 경우를 언급하는 것도 그런 까닭일 것이다. 그래서 임철초는 명에서 가장 분별하기 어려운 것이 청탁(淸濁)이라고 하였고 단순히 용신의 유무 정도로 쉽게 논할 수 없으니 전반적인 정세를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서락오도 청탁(淸濁)의 관건은 배합이 있고, 배합이 적당하고 용신이 수요에 맞으면 청(淸)한 것이라고 하면서, 탁기(濁氣)의 위치에 따라 원래

는 청하다가 탁함으로 흐르기도 하고, 탁하다가 청함으로 흐르기도 한다고 하였다. 사실 반자단의 평주까지 모두 살펴봐도 큰 이견은 발견되지 않지만, 또 한편으로는 명확하게 청과 탁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지도 못하다 할 것이다. 그래서 예시를 들어가며 정의해 놓은 유백은의 청탁에 대한 평주가 더욱 빛나는 것이고 명확한 해석인 셈이다.

청탁(淸濁)편은 두 개의 문장이 대칭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앞 문장이 딱 청함을 논한 것도 아니고 뒤 문장이 딱 탁함을 논한 것도 아니다. 청탁은 항상 혼잡하여 사주에 배합되어 있는 법이고 중국에 청함이 드러나면 길할 것이고, 청한 듯 보어도 무력하거나 편고하면 고통스러울 따름이라고 하였다. 특히 반탁반청(半濁半淸)을 고스란히 따라가며 살다 보면 일을 성취하기도 실패하기도 하는 반복의 연속이라고 인생을 논하면서 삶 속에서 수양의 중요성을 은연중에 피력하고 있다는 생각을 들게 한다. 탁기(濁氣)에 대한 평주 중에서 임철초가 탁함을 기신(忌神)이라고 명명하고 있는 부분이나, 반자단이 적천수 후반부의 귀천빈부길흉수요(貴賤貧富吉凶壽夭; 何知章)이나 출신(出身), 지위(地位)편 등의 내용이 모두 청탁의 의미를 확대하여 논하는 것이라고 한 점들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표 6〉 격국론 관련 ‘청탁’ 원문 및 4인 평주 요약

淸氣	一淸到底有精神，管取平生富貴真，澄濁求淸淸得去，時來寒谷也生春。
유백은	淸하다는 것은 예)正官格이 신왕할 때 財가 있거나 신약할 때 印이 있고 傷官, 七煞이 혼잡되지 않은 상태를 칭한다. 濁해도 탁기를 소제하고 淸해질 수도 있다.
임철초	命에서 가장 분별하기 어려운 것이 淸과 濁이다. 중요한 것은 澄濁求淸이다. 격국에 필요한 氣의 有無로 무조건 淸濁을 논할 수 없고 正세를 보아야 한다.
서락오	淸濁의 관건은 배합에 있나니, 배합이 적당하고 용신이 수요에 맞으면 淸한 것이고, 濁氣의 궁위에 따라 源淸流濁, 源濁流淸 하고, 澄濁求淸하기도 한다.
반자단	사주가 맑으면 아름답고, 탁한 가운데 맑은 기운이 있어도 쓸만하다. 전적으로 사람의 빈부귀천은 사주의 청탁에 의해 결정된다고 논하였다.
濁氣	滿盤濁氣令人苦，一局淸枯也苦人，半濁半淸無去取，多成多敗度晨昏。

유백은	濁氣를 제거하지 못하면 빈천하고, 淸氣라 할지라도 메말라 무력하면 淸해도 고통스럽다. 행운에서 淸氣를 만나고 濁氣를 제거하는 등 다양한 成敗가 일어난다.
임철초	濁이란 혼잡이며 忌神이다. 淸枯란 일주에 뿌리가 없거나 용신이 무력한 것으로 弱과는 다른데, 枯는 뿌리가 아예 없어 도와주어도 生氣를 뿜 수 없다.
서락오	枯는 편고하며 회용이 부정하고 생육의 뜻이 없다. 濁은 배합을 잃은 것이요, 枯는 偏勝하여 淸과 비슷하나 無情함이 다르고 夭死貧賤하고 終身孤苦하다.
반자단	맑은 곳에서 탁한 것을 보고, 탁한 곳에서 맑은 것을 찾는다. 하지장의 부귀빈천, 출신지위 등의 내용은 모두 청탁의 의미를 확대하여 논한 것에 불과하다.

### 3. 결론

『적천수』 원문(原文)을 평주했던 명(明), 청(淸), 근대(近代)의 명리학자는 유백은, 임철초, 서락오, 반자단 이렇게 4인이다.

격국과 관련하여 ‘팔격(八格)’, ‘영향요계(影響遙繫)’, ‘잡기재관(雜氣財官)’을 원문에서 직접 명시하고 있으므로 저작 시기를 송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렇다 할지라도 『연해자평』과 『삼명통회』에 드러난 다수의 명리이론 경향성에 반하여 다양한 잡격을 배척하고 정격 중심의 간명법을 주장한 『적천수』의 선도적 연구와 견해는 독보적임을 부인할 수 없다.

『적천수』는 명리 초급자에게 읽히고자 저술된 서적은 아니라고 밝혔듯이 격국의 각론에서도 그런 경향성은 고스란히 드러난다. 8가지 정격, 팔격(八格)이 있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격 각론과 관련하여 ‘관살’과 ‘상관’ 2개의 원문만이 있는 것이 고작이다. 또, 정관격, 칠살격 중에도 십여 종의 격국 체상(體象)이 있을 터인데 언급된 것은 ‘관살혼잡(官煞混雜)’뿐이며, 상관격 중에도 상관이 재성을 쓰는 상관용재(傷官用財), 상관이 인성의 제복을 받는 상관패인(傷官佩印) 등도 있는데 언급된 것은 ‘상관견관(傷官見官)’뿐이다. 왜 이 2종의 세부 격국 형식을 기록으로 남겼는지는 너무 자명하다. 8종의 격국, 그리고 사주 상 배합되는 수십여 종의 세부 격국 형식 중에서 가장 용신, 희신 그리고 취운을 추론하기 어려운 것들이기 때문이다. 원문의 내용도 답을 알려주기

보다는 주의하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에 불과하다. 하나의 문장에 그 답을 기록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후대 4인 평주자들은 그 해답을 기록하고 부연하고자 고전분투한다. 전체 각 평주 내용 중에서 여기에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것도 격국론에 관한 관심이 높았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본다.

## 참고문헌

- [1] 徐樂吾, 『滴天髓補註』, 台北: 武陵出版社, 1999.
- [2] 徐樂吾(編註), 『滴天髓徵義』, 台北: 武陵出版社, 2016.
- [3] 劉伯溫(著), 『滴天髓輯要』, 台北: 瑞成書局, 1996.
- [4] 任鐵樵 增註, 袁樹珊 選輯, 『適天髓闡微』, 臺北: 武陵出版有限公司, 2011.
- [5] 水繞花堤館主, 『滴天髓新註』, 台北: 有林出版社, 2011.
- [6] 구경희, 『적천수강해』, 서울: 동학사, 2013.
- [7] 김기승·김현덕, 『적천수천미』, 다산글방, 2017.
- [8] 김기승, 『과학명리』, 서울: 다산글방, 2016.
- [9] 김기승·나혁진, 『명리학사』, 다산글방, 2017.
- [10] 수요화제관주 著, 나명기 譯, 『완역 명학신의』, 서울: 드림엔비전, 2013.
- [11] 서락오 보주, 이무학 譯, 『적천수보주』, 서울: 삼하, 2001.
- [12] 임철초 증주, 원수산 선집, 김동규 역, 『적천수천미』, 명문당, 2002.

## 이 보 영(Bo-Young Yi)



- 2018년 03월~현재 : 경기대평생교육원 명리학교수
- 2019년 03월~현재 :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동양학과(박사과정)
- 2018년 08월 :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동양학과(동양학석사)
- 관심분야 : 명리학, 진로상담, 교육
- E-Mail : qhdud1959@naver.com

## 김 기 승(Ki-Seung Kim)



- 2012년 03월 ~ 현재 :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동양학과 교수
- 2005년 03월~2011년 04월 KICU 대학원 교수
- 2014년 02월 : 경기대학교 대학원 직업학과 졸업 (직업학박사)
- 2011년 02월 : KICU대학원졸업 (교육학박사)
- 관심분야 : 진로교육, 선천적성, 직업상담, 명리학
- E-Mail : kbs4984@hanmail.net